

교회소식

- 당분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모임을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에 Zoom 프로그램과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묵상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금요일(10일) 저녁 8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4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4호

2020년 4월 5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140장(통130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All Glory, Laud and Honor
헌금 및 감사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요한복음 12:12-33 John 12:12-33
설교 Sermon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413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지난 주 주일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마태복음 2:13-23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하십니다. 헤롯이 “가만히” 꾸민 음모를 하나님은 아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호세아의 예언이 이뤄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놓친 것이 분해서 인근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이 끔찍한 일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던 때를 묘사한 “라마에서의 통곡과 아들을 잃고 애곡하는 어머니 라헬의 애곡”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아들 아켈라오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위기를 구약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우연히 비슷한 사건이 있어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용된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기들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잉태와 탄생이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큰 구원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 때 겪으신 위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시며,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위기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고난, 나아가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몸을 의탁해 노예 생활을 한 것,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될 때 어린아이들이 학살 당하고 어머니들이 통곡한 슬픔을 아기로써 몸소 겪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언약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은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의 위로는, 포로들이 돌아옴으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말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때(히 2:9-10) 온전히 이뤄졌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몸 풀 곳을 찾아 헤매게 만든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 헤롯의 가만히 꾸민 살인 음모, 무고한 유아 학살,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아켈라오의 위협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결코 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은 별볼일 없는 시골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요 1:46). 예수님은 실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할 정도로 볼 품 없는 연한 순, 어린 가지였습니다(사 53:2-3).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구주십니다(사 11:1-5). 그가 받은 조롱과 멸시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권세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고난 받는 자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심지어 꿈꾸지도 못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십니다.

<Memo>